

우리 아이의 캐릭터를 만나요



무료 검사와 같은 캐릭터

별을 꿈꾸는 철학 토끼

지식을 따뜻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아이

위 문장은 기존 캐릭터를 소개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이 이름에 담긴 두 가지 이야기

책 속에서 만난 질문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다시 피워 내는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인성이 받아들인 생각을 식상이 그림·말·놀이로 펼친다고 읽습니다. 많이 아는지 확인하는 질문보다 “그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초대가 이 캐릭터의 주제를 생활로 이어 줍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에서 한 걸음 더

책을 덮은 뒤에도 왜 그런지 묻거나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는 날이 떠오른다면, 정답 외에 아이만의 표현을 남길 자리는 있을까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장면이 없다면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캐릭터가 실제 아이보다 먼저 정답이 될 필요는 없어요.

부모에게 건네는 초대

그 장면이 궁금했구나. 네 생각을 먼저 들려줄래?

이 책은 재능의 한계를 정하는 평가표가 아닙니다. 유형에 어울린다는 활동도 아이가 고르고 바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가족의 경험이 됩니다.

사주에서 캐릭터로 이어지는 길

2019년 2월 3일 10시 0분

	시	일	월	년
천간	癸	辛	乙	戊
지지	巳	未	丑	戌

기존 검사에서 유형을 고르는 방법

무료 검사는 천간과 지장간의 십성을 다섯 묶음으로 집계한 뒤, 상위 두 범주를 1차·2차 기질로 사용합니다. 아래 값은 그 계산의 가중 집계이며 성격의 비율, 지능, 성적 또는 합격 가능성이 아닙니다.

범주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가중 집계	1.3	1.5	1.4	1.2	2.7

인성에서 식상으로 이어지는 상징

일간을 생하는 기운으로, 배움과 돌봄, 받아들여 생각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일간이 생하는 기운으로, 생각이 말과 작품으로 나오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번 유형

인성 · 식상 / 별을 꿈꾸는 철학 토끼

입력한 출생 시각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출생 시각이나 날짜 정보가 달라지면 계산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학자형 친구들 · 인성

질문을 품고 자라는 친구들. 듣고 생각하기라는 주제에 다른 기질이 만나 어떤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세요.



진리를 찾는 구도자

인성 · 비겁

배운 것을 자기 생각으로 세워 가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충분히 듣고 직접 정할 작은 선택으로 이어 봅니다.



별을 꿈꾸는 철학 토끼

인성 · 식상 / 우리 아이의 캐릭터

책 속에서 만난 질문을 자기만의 이야기로 다시 피워 내는 토끼의 이야기입니다. 인성이 받아들인 생각을 식상이 그림·말·놀이로 펼친다고 읽습니다. 많이 아는지 확인하는 질문보다 “그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라는 초대가 이 캐릭터의 주제를 생활로 이어 줍니다.



현실을 꿰뚫는 전략가

인성 · 재성

배운 것을 생활의 답으로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어디에 써볼지 작은 문제에서 확인합니다.



왕의 고결한 스승

인성 · 관성

이해한 것을 차분한 순서와 약속으로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듣는 시간과 자신이 설명하는 시간을 함께 둡니다.



깊은 심해의 기록관

인성 · 인성

질문 안에 오래 머물며 생각을 넓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깊게 보는 시간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만나는 시간을 잊습니다.

지금 나이에 필요한 배움

가상 예시 아이의 현재 나이는 만 7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경험을 먼저 읽고, 아직 오지 않은 시기는 준비의 방향으로 읽어 주세요.

캐릭터의 주제를 생활로 옮기면

철학 토끼의 이야기는 배운 것을 자기만의 표현으로 다시 꺼내는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책을 읽고 내용을 시험하듯 묻기보다 인형에게 다른 결말을 들려주거나, 구름에 이름을 붙여 보는 초대를 해볼 수 있어요. 아이가 실제로 즐기는지는 그날의 반응으로 확인합니다.

이번 나이에는 이렇게

함께 그림책을 보고 다음 장면을 상상하는 놀이부터 제안해 보세요. 공부 시간을 늘리기보다 아이가 시작한 말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완성하지 않고 다른 놀이로 옮겨도 괜찮습니다.

배움의 신호는 작게 남습니다

어제는 도움받았던 부분을 오늘은 먼저 해보았는지, 질문이 한 가지 더 생겼는지, 스스로 쉬겠다고 말했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장면을 사진 한 장이나 아이의 말 한 문장으로 남기면 진도표와는 다른 성장의 기록이 됩니다.

오늘 곁에 둘 한 문장

이번 주에는 새 교재보다 아이가 다시 꺼내 든 활동 하나를 먼저 살펴보세요.

공부와 손작업을 함께 펼치기

“공부 머리가 있을까, 손으로 만드는 일을 잘할까?” 두 길 중 하나를 일찍 닫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좋아한다면, 수학도 이야기 안으로

토끼 캐릭터를 따라 그림책 속 집을 블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누가 살지 말하는 시간은 언어 놀이가 되고, 방의 크기와 개수를 바꾸는 과정은 수량과 공간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야기 취향이 있다고 수리의 길을 닫지 않습니다.

손기술은 완성품 한 번으로 정하지 않기

자유롭게 만드는 날과 간단한 예시를 따라 만들어 보는 날을 나누어 보세요. 처음 생각한 것과 달라졌을 때 어떻게 바꾸는지, 다음에도 해보고 싶은지가 확인할 정보입니다. 속도나 깔끔함만으로 잠재력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확장이 필요한 때와 도움이 필요한 때

익숙한 활동을 스스로 다시 찾고 조금 다른 과제를 원한다면 난이도를 한 단계 바꿔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을 바꾸고 쉬어도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실제 과제와 기록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주 점수가 지능 검사나 성적 자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곁에 둘 한 문장

같은 주제를 말로 설명하기, 그림으로 그리기, 손으로 만들기 중 아이가 원하는 두 방식으로 만나 보세요.

부모의 말이 닿는 순간

책을 덮은 뒤에도 왜 그런지 묻거나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는 날, 가상 예시 아이에게 건넨 첫 문장을 생각해 봅니다.

고치기 전에 뜻을 확인하는 한 문장

“그 장면이 궁금했구나. 네 생각을 먼저 들려줄래?” 이 문장은 별을 꿈꾸는 철학 토끼의 주제를 대화로 바꾼 예입니다. 아이가 이 장면과 다르다면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지보다 자기 생각을 설명할 자리를 받았는지 먼저 돌아보세요.

따뜻함과 규칙을 함께 주기

마음을 받아준다는 것은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하고 싶었구나. 이제 씻을 시간이야. 작품을 여기 둘까, 사진으로 남길까?”처럼 감정은 듣고, 필요한 경계는 짧게 설명하고, 가능한 선택을 남길 수 있어요.

부모도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거칠게 말했다면 완벽한 부모처럼 덮기보다 “아까는 내 말이 너무 급했어. 네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어”라고 돌아와 주세요. 아이에게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어른보다, 관계를 다시 잇는 경험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바로잡기 전에, 그 이야기 속에 아이가 무엇을 담았는지 함께 들어가 주세요.

오늘 곁에 둘 한 문장

조언을 더하기 전에 아이의 말 한 문장을 되짚어 주세요.

0~7세 · 마음과 놀이의 뿌리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이 가르쳤는지보다 함께 반응하고 놀았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0~2세 ·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대화

아이가 보는 곳을 함께 보고, 낸 소리에 반응하고, 다시 반응할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버드 아동발달센터는 이런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초기 발달을 지원하는 관계 경험으로 설명합니다. 특별한 교구보다 일상에서 가능한 짧은 교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3~5세 · 상상에 이름을 붙이는 시간

토끼의 주제를 빌리면, 한 권을 끝까지 읽는 성과보다 아이가 바꾼 이야기 한 장면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달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어디서 잘까?” 같은 질문에 말·그림·몸짓 중 편한 방식으로 답하도록 초대합니다.

6~7세 · 배움으로 건너가는 작은 다리

준비물 챙기기나 놀이의 차례처럼 하루의 작은 순서를 함께 익혀 봅니다. 먼저 해볼 부분을 고르게 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말도 연습합니다. 초등 진도와 비교하는 대신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편안함과 도움의 통로를 준비합니다.

오늘 곁에 둘 한 문장

아이가 만든 질문이나 이야기를 한 장에 모아 작은 책의 첫 페이지로 남겨 보세요.

학군지 이사, 무엇을 바꿀까요?

학군지라는 주소보다, 이사를 통해 바꾸려는 하루가 무엇인지 먼저 정합니다.

우리 아이의 캐릭터에서 가져갈 질문

질문을 기다려 주는지, 읽고 이야기할 공간과 시간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철학 토끼의 주제라면 질문을 받아 주는 수업, 읽고 만들고 이야기할 공간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됩니다. 학원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이사가 해결할 문제인지 구별하기

현재 학교에서 충족되지 않는 구체적인 필요가 있고, 후보 학교에서 그 지원이 실제 제공되는지 확인했다면 비교할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유명하니 더 잘할 것”만 기대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수업·활동·도움을 조정할 방법부터 확인해 보세요.

얻는 것과 잃는 시간을 같은 칸에

교육과정·지원 체계와 함께 통학, 돌봄, 친구와의 연결, 주거비 부담, 부모의 여유를 나란히 봅니다. 주소를 옮겨도 아이가 쉬고 이야기할 시간이 사라진다면 기대한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주만으로 부동산 매수나 이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곁에 둘 한 문장

현재의 필요 · 후보 학교의 확인된 지원 · 생활 부담 · 현재 지역의 대안, 네 항목이 채워진 뒤 판단하세요.

유학, 기회와 정착을 나누어 보기

낯선 곳을 만날 기회와,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조건은 다른 질문입니다.

캐릭터에 어울리는 경험부터 작게

그림·말·몸짓으로 같은 생각 표현하기를 다른 언어나 문화와 만나는 소재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언어의 노래나 그림책을 함께 즐기는 경험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경험을 좋아한다는 것과 장기 유학을 원하는 것은 구분합니다.

유학을 더 살펴볼 만한 조건

아이가 원하는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재 환경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으며, 수업 언어와 현지 지원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아이의 의사·돌봄 담당자·비용·긴급 상황의 도움·돌아오는 선택까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직 멈추어 확인할 조건

아이보다 어른의 기대가 앞서거나, 학교 이름만 정해졌거나, 실제 생활을 도울 사람이 불분명하다면 큰 결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명식의 이동 표지를 곧바로 유학 성공이나 해외 정착의 확률로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곁에 둘 한 문장

“해외에 가야 하나?”를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누가 일상을 지지할까?”로 바꾸어 보세요.

아이에게 오래 남을 부모의 편지

가상 예시 아이의 부모님께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를 남겨 주세요

별을 꿈꾸는 철학 토끼라는 이름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까닭은 아이가 이미 모든 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 거예요. 작은 질문 하나로도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아이에게 잘해야 한다는 숙제가 되지 않고, 함께 궁금해해도 된다는 초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아이를 미래의 결과보다 먼저

언젠가 갈 학교와 갖게 될 직업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아이가 덜 힘들기를 바라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오늘의 질문으로 조금만 옮겨 보세요. 무엇이 재미있었는지, 어디에서 도움이 필요했는지, 내일도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요.

부모님께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매번 좋은 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놓친 날에는 다음 날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책을 덮고도 남았으면 하는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이 책과 다르게 자라도 그 성장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곁에 둘 한 문장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네가 어떤 길을 고르든, 네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